

# 기상사랑

www.kma.go.kr Vol.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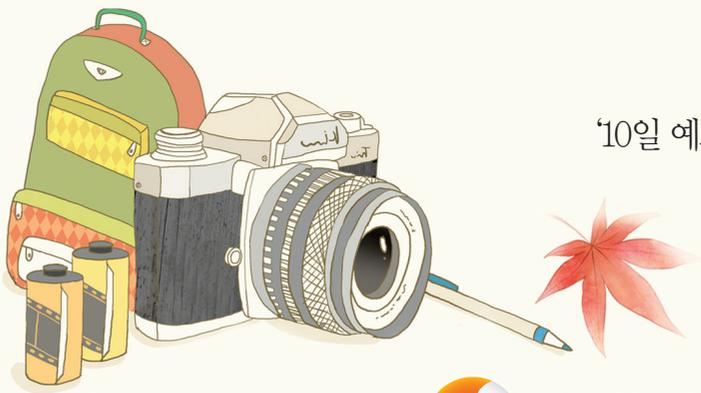
2013. November 11

풍경이 있는 날씨촌  
괴산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날씨 에세이  
날씨와 놀이공원의 은밀한 관계

열린마당  
NASA에서의 2년을 돌아보다

포커스  
'10일 예보'의 시작, 생활이 반올림 됩니다!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다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타운

개방

공유

협력

소통

## 창조 아이디어 제안

- 사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하세요, 전문가 멘토링으로 지원합니다.
- 지식재산권, 시제품 제작,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발전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공유 아이디어 공간

- 생활 속 지혜, 제품 아이디어, 창업 경험, 사회 문제 등 누구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 각 분야의 멘토와 이용자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갑니다.



##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

-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창조경제 사례

- 기업, 개인, 연구소 등의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교육·문화, 안전·의료·복지, 환경·에너지 등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전시합니다.



‘창조경제타운’이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이들을 멘토링으로 지원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더하고 나누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입니다.

[www.creativekorea.or.kr](http://www.creativekorea.or.kr)

November **11**



## Contents

### KMA Special Issue

- 풍경이 있는 날씨촌 핑 대신 닭? 포항에 가다! · 02
- 괴산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 04
- 날씨 에세이 날씨와 놀이공원의 은밀한 관계 · 06

### KMA About

- 열린마당 NASA에서의 2년을 돌아보다 · 08
- 카리스마, 인생의 소명 · 10
- 영국 레딩대학교에서의 두 번째 학창시절 · 12
- “삶이 예술이 된다면, 당신과 함께” · 14
- 「기상정보론」을 읽고... · 16
- 대구기상대의 새 시대를 열다 · 18
- 인천기상대가 이사하던 날 · 20
- 포커스 ‘10일 예보’의 시작, 생활이 반올림 됩니다! · 22
-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전 세계 과학기술자들이 모두 모이다 · 24
- 2030 솔로탈출 꿈수 커플 vs 꿈수 솔로 · 26

### KMA Hope

- 공익광고 기초든든 연금이야기 · 28
- 날씨만화 10일 예보 · 29
- 포트뉴스 · 30
- 퀴즈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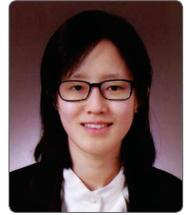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2013년 11월호(통권 389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6 팩스 (02)836-5472  
E-mail kimhy80@korea.kr 발행일자 2013년 11월 11일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고윤화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정관영 편집기획 대변인실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 핑 대신 닭? 포항에 가다!



정연화 / 레이더운영과

달력에서 황금빛 기운을 뿜어내던 지난 추석연휴. 짧게라도 해외여행을 갈까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돈이라든가!!)으로 인해 불발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가만있자니 너무도 아쉬워, 국내여행이라도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정말 어째서인지 ‘포항’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서울에서 멀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가 보면 뭔가 있겠지?’ 라는 생각에 냉큼 숙소와 교통편을 예약했다. 그 후 스케줄을 짜는데, 아뵘싸! 숙소인 포항 시내에서 일출이 유명한 호미곶까지 무려 버스로 1시간이나 걸리는 게 아닌가? 다른 건 몰라도 일출은 꼭 보려고 굳게 먹은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결국 호미곶에서 일출을 보려면 자가용을 끌고 가거나, 근처에서 하루 묵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며 일출은 포기해야만 했다.

드디어 포항으로 출발! 버스로 4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후, 숙소로 이동하니 늦은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내를 누비려던 포부는 숙소 프런트에서 걸려온 전화에 간신히 깨어나며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황급히 관광안내소에서 정보를 수집한 후, 첫 번째 목적지인 구룡포로 향했다.

200번 버스의 종점에서 내리자, 바로 길 건너편이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일본인가옥거리)였다. 100여 년 전 이곳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가옥이 남아 있는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의 소박한 거리인데, 하시모토 젠키치라는 사업가의 집을 수리한 ‘구룡포 근대역사관’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일본 여행을 가서도 보지 못한 일본식 가옥의 내부를 한국에서 보게 될 줄이야... 역사관이라고는 해도 2층짜리 개인집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았다. 하지만 꽤 알차게 재현해 놓아서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재미삼아 가 봐도 좋을 것 같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역사거리 안에 위치한 ‘후루사토야(古里家)’라는 찻집을 추천한다. 맛은 평범하지만 종업원마저 일본인이다 보니,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즐길 수 있다.



구룡포에서 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유명한 **호미곶**으로 이동했다. 버스에서 내려 새천년기념관이라는 건물을 지나자마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상생의 손이 한 쪽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무언가를 떠받치고 있는 모양의 오른손은 바다에 있고, 왼손은 육지에 떨어져 설치되어 있던 것이다.

일출 때 모두가 바다에 있는 오른손만을 찍어 올리다 보니, 당연히 한 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놀라웠다. 아니면, 나만 몰랐던 건가? ^^; 아무튼 왼손에게 사죄하며, 한동안 바다 구경에 몰두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씨여서 아쉽긴 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동해의 깨끗한 바닷물이 그 기분을 말끔히 씻어내 주었다.

호미곶 해안을 조금 산책하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포항 시내를 지나, 이번에는 **영일대해수욕장**으로 향했다. 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부터 1.2km 구간을 해안가를 따라 나무데크,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깔고 야외무대와 갖가지 동상을 설치해서 산책과 전시물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연테마거리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기막힌 타이밍으로 환상적인 노을도 보고, 이내 어두워진 바다 저편에선 그 유명한 포항제철소의 야경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북부해수욕장에서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바꾼 계기가 된 영일대 해상누각에서 이 모든 절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염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었다. 해안가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환호공원이 나오는데, 해가 떨어져버려 거기까지 가보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울 따름이었다.

여행 마지막 날, 이럴 땐 빗나가길 바라는 일기예보인데 매정히도 오전부터 비가 내렸다. 그래도 살짝 흠뻑리는 정도로 괜찮아지길 바라며 **내연산 군립공원**으로 가는데,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를 정말 '어찌합니까 ~ 어떻게 할까요 ~ 감히 제가, 감히 우산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비를 두르고, 바짓단은 무릎까지 둘둘 말아 올렸다. 또 핸드폰과 카메라, MP3 등을 담아서 불룩해진 재킷주머니를 늘어뜨리고, 비에 젖은 생쥐 꼴로 우중산행을 감행했는데, 단언컨대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



호미곶 상생의 손



영일대해수욕장

내연산 등산로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중 내가 선택한 건 일명 '**12폭포길**'이었다. 포항 최대의 사찰인 보경사에서 시작해 정상의 향로봉까지 가는 동안 12개의 폭포를 볼 수 있는 길인데, 산이 그리 험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또한 조금만 가면 폭포, 또 조금만 더 가면 폭포가 나오니 지루할 새가 없었다. 폭포마다 그리 크진 않지만 하나같이 매력이 있고, 특히 제6폭포인 관음폭포는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솔직히 그리 기대하지 않고 떠났는데,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충실하게 즐기고, 맑은 기운까지 받아온 보람찬 여행이었다. 포항에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아니, 거기 뭐 볼 게 있대고?**" 라며 의아해했던 지인들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리라. "**어머, 레레레 말고도 볼 거 엄청 많대고~!**"



제7폭포 연산폭포

# 괴산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김우정 / 위성운영과



“날씨 무지 좋다!”

“이렇게 연휴가 허전할 땐 뭘 해야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 같더니 금세 가을이다. 높디높은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가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니 다들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모양이다. 요즘처럼 봄, 가을이 귀한 때가 있었던가? 무더위에 지친 여름을 지나 드디어 시원한 가을이다 싶으면, 또 금방 겨울이 돼버리니 말이다. 아,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린 훌쩍 떠나기로 했다. 천혜 자연경관이 살아 숨 쉬는 곳, 충북 괴산으로.



1



2

1 위성운영과 단체사진 2 괴산호

##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떠나는 길

이곳 충북 진천의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괴산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걸린다. 아주 가깝다고 할 순 없지만 그리 멀지도 않은 위치다. 떠나던 날, 마침 또 날씨씨는 어찌나 좋던지! 동료들과 부푼 마음을 안고 산막이 옛길로 향했다. 모처럼 공휴일이라 편히 쉬고 싶을 법도 한데, 자그마치 15명이나 따라나선 걸 보니 우리 과 단합은 정말 최고!

## 산막이 옛길이란?

괴산에 있는 '숲속 자연의 보고'인 산막이 옛길은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괴산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곳이다. 또한, 국내 3대 아름다운 길로 소문이 나있을 정도다. 이 길은 괴산호를 끼고 산막이 마을까지 조성된 총 길이 10리, 즉 4km의 옛길이며, 흔적처럼 남아있는 옛길에 덧그림을 그리듯이 그대로 복원된 산책로이기도 하다. 옛길 구간 대부분이 나무받침(테크)으로 이루어져 있고 괴산댐 호수와 잘 어우러져 있어, 살아있는 한국의 자연미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산막이 옛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할 것 같은 그런 길이다.



④ 소나무 출렁다리

## 26개의 명소에서 살 빠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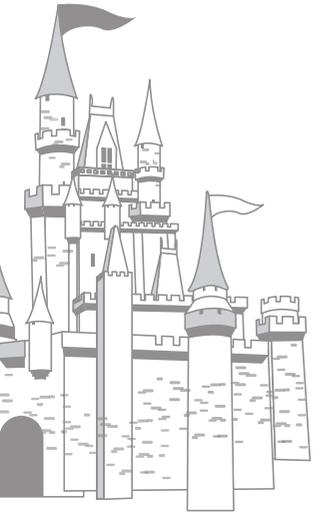
산막이 옛길에는 2개의 등산 코스와 1개의 트래킹 코스가 있다. 평소에 산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등산 코스를, 가볍게 산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트래킹 코스를 따라 걸으면 된다. 또한, 나무에서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거나 나올 수도 있어, 걷는 것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어린아이까지 온가족이 함께 관광하기에도 무척 좋다.

산막이 옛길을 따라 걷다보면 중간 중간에 자리한 26개의 명소들이 나온다. 뿌리가 서로 다른 나뭇가지가 한 나무처럼 합쳐진 '연리지', 1만평 정도의 소나무 군락지인 '소나무동산', 야생동물들이 지나다니며 목을 축였다는 '노루샘', 앓은뱅이가 지나가다 물을 마신 후 걸어서 갔다는 전설을 가진 '앓은뱅이 약수', 골짜기의 바람이 불어 내려와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서늘한 '얼음 바람골', 40m 절벽 위에 세워져 있고 바닥이 투명하여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주는 '고공전망대' 등 명소가 줄이어 나온다. 그리고 소나무와 소나무를 연결한 '소나무 출렁다리'에서는 짜릿한 스릴도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싱그러운 산바람과 불어오는 강바람을 느끼며 약간 살도 빠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걷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게 된다.

## 맛있게 먹길

아무리 산 좋고 물 좋으면 뭐하겠는가. 트래킹을 마친 우리에게 뭔가 허전한 이 기분... 아니, 허전한 위장! ^^ 등산의 마무리는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이다. 매운탕, 산채비빔밥, 두부요리 등 산막이 옛길 주변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한 건 바로 닭백숙이다. 직접 기른 토종닭을 바로 잡아서 삶아주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눈길을 은근슬쩍 즐기며, 우리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

아직 단풍이 많이 물들기 전에 가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더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물론 연인과 함께라면 더 없이 좋은 둘만의 데이트 코스도 될 것이다. 휴일에는 하루에 만 명 정도가 다녀갈 만큼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 이번 주말에는 답답한 집과 사무실을 떠나 충북 괴산의 산막이 옛길을 찾는 만 명 중의 한 명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힐링여행'이 될 테니 말이다.



# 날씨와 놀이공원의 은밀한 관계



김태형 / 롯데월드 홍보과장



영화 <연애의 온도>를 보면, 주인공들이 놀이공원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나온다. 놀이 기구를 타며 즐거워하던 그 커플은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급속도로 사이가 냉랭해지다가,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내며 우약스런 모습으로 헤어지고 만다. 사람의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로 결정된다. 비가 내리면 습도가 높아져 자연스럽게 불쾌지수도 올라간다. 그러니 영화 속 그 커플이 헤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불쾌지수도 어느 정도 한몫 하지 않았을까?

이처럼 날씨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기분을 들뜨게 하는 놀이공원은 날씨에 따라 어떻게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까? 또 날씨를 이용한 마케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속한 곳은 1995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적이 있는 국내 대표 테마파크다. 실외 파크인 매직 아일랜드는 물론이고, 실내파크인 어드벤처에도 놀이기구가 있는 이런 시설조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곳이 기상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실내와 실외가 함께 공존하는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 효율적인 날씨마케팅이 필요하다.

혹서기와 혹한기는 온도와 습도로 인해 사람들뿐만 아니라 놀이공원에도 불편한 시기다. 같은 장소와 시간이라더라도, 날씨로 인해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체감시간은 더욱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기 놀이시설 10곳에 사전예약제인 ‘매직패스’를 도입하여 기다리지 않고도 시간에 맞춰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기하는 동안 고객들의 체감시간을 줄이기 위해, 캐릭터와의 포토타임과 신기한 매직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유대관계를 형성해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여름의 스노우 파티



어드벤처



날씨마케팅은 이뿐만이 아니다. 관람객들에게 바깥 날씨와는 상반되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드벤처 돔(DOME)을 적극 활용한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해, 투과되는 빛의 세기에 따라 실내의 조명 밝기를 조절하고, 돔의 개폐를 통해 온도 또한 적당하게 맞추고 있다. 이런 방법은 단순한 1차원적인 서비스를 넘어서는 것이며, 절감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석촌호수 위의 매직캐슬을 중심으로 펼쳐진 매직 아일랜드는 어떨까? 열과 추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야외에선 큐라인(놀이기구 탑승 전에 대기하는 줄)에 파라솔을 설치해 위에서 내려오는 열기와 눈을 막아준다. 또한 여름에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가라앉혀 사람들의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거리 곳곳에 물과 바람을 분사하는 ‘드라이포그’를 20여대 설치하며, 겨울에는 사람들의 체온이 머리 쪽에서부터 빠져나간다는 것을 이용하여 스탠드 난방기를 설치한다.

한편, 장마기간에는 줄기차게 내리는 비가 사람들의 외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할인해 주는 ‘레인데이’ 등 날씨와 관련된 혜택을 마련해 나들이를 유도한다. 이러한 결과 올해 장마기간 동안, 외출할 장소가 마땅치 않던 사람들이 실내와 갓가지 날씨마케팅으로 마련된 이곳으로 발길을 돌렸고,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다.

아직도 날씨를 탓하며 놀이공원 이용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비가 오는 날엔 집에서 부침개를 부쳐 먹으며 지내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그렇게 녹눅한 방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당신을 기다리는 롯데월드가 있으니까 말이다.





# 나의 또 하나의 시간... NASA에서의 2년을 돌아보다



이혜숙 / 위성기획과

## 나에게 NASA는?

NASA(미국항공우주국)라는 기관이 나에게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만우절과 개학날이었던 중학교 시절이었다. 만우절 준비를 위해 1년을 계획하고, 개학날을 위해 방학 내내 집에 은둔하며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골탕 먹일 계획을 짜느라 최선을 다하던 시기였다. 그러던 겨울방학 때, 챌린저호의 발사 장면을 보게 되었다. 탑승한 우주인들이 위대해보였고, 만 가지도 더 되는 질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바라보던 중, 정말 순식간에 로켓이 폭발돼버렸다! 그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한 달이 넘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 뒤에 나도 모르게 생긴 트라우마는 발사 장면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웬지 만우절과 개학이 무의미해져 버렸다. NASA는 이렇게 내 인생에 첫 번째 트라우마를 만들어 준 곳이었다.

## 궁금한 이야기 Y

6년여를 천리안위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2010년 12월에 장기과전 과정으로 향한 곳이 바로 NASA였다. 능력 있는 나의 보스인 Michael Hesse 덕에 특별(?) 대우를 받아 단, 3일 만에 사무실 배정과 사무실 열쇠 및 이메일 계정 그리고 심지어 출입증까지도 발

급되었다. 그러자 파도 같은 업무가 바로 밀려들었다. NASA에 온 뒤 1주일 안에 배정된 업무는 1) 우주기상 현업, 2) 우주기상 현업모델 검증, 3) 자기유체역학 모델 연구 그룹 참가 이렇게 세 가지였다. 이 업무들과 관련된 주간 회의가 11회였고, 자기유체역학 모델 연구 그룹 모임은 매일 아침 9시에 시작됐다.

우주기상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영어도 익숙하지 않은 내가, 매일 아침마다 얘기나 발표를 해야 하고, 매주 주간업무 보고도 하고, 또 매일 우주기상 브리핑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딱 한 가지 생각을 하게 했다... “괜히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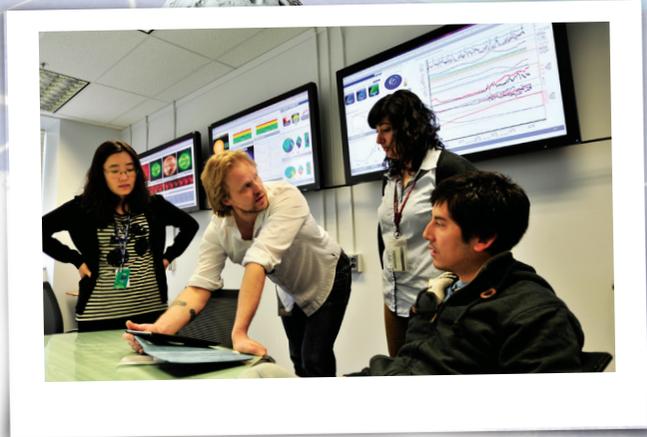
## NASA에서 내 심장을 조인 것은?

그것은 오리였다. 미국의 오리들은 찾길을 건널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보통 오리들은 찾길이 무섭기 때문에 빨리 건너려고 목을 빼고 건넌다. 그런데 이 거만한 NASA 오리들은 내가 아침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주로 나타났다. 이 녀석들은 발을 툅하니 도로에 얹어놓고 뒤에 따라오는 동료들을 기다리거나, 건너다 도로 중간에 서서 두리번거리며 어디로 갈지 갈등하곤 해, 차에서 내려 꼭 쥐어박고 싶게 만든다. 오리가 나타나는 시간기준제는 늘 느리게 흘러간다. 초조한 내 심장의 시간 사이를 오리가 유유히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 우주기상... 우주기상... 우주기상...

그렇게 6개월여를 보내고 나니 어느새 발표도 몇 차례 하고, 우주기상 현업팀 주요멤버 4명 중 한 명이 되었다. NASA는 현업기관이 아니다. 다만, NASA 내의 지구관측 및 행성탐사 등의 우주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및 우주탐사선의 안전을 위해 우주기상예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 NASA에서도 우주기상은 그리 호의적인 분야는 아니다. 나의 역할은 팀을 이끌며 우주기상 예보·경보를 총괄하기도 하고, 주간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우주기상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도 하는 일이었다. 국회의원 아주머니, 백악관 아저씨, 소설가 등 다양한 손님맞이를 하며 보스에게도 각별한 인정을 받아 순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이 터져버렸다. 그것도 결정적으로 NASA의 우주기상업무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국장님께서 오셨을 때였다. 심각한 얘기들이 오고가던 중,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우주 날씨 브리핑이었는데, 갑자기 네트워크 장애로 영상들이 안 올라오기 시작했다. 태양에서부터 행성 사이의 공간 그리고 근지구간의 우주 날씨를 설명하고, 각 NASA 탐사선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설명해야 하는데, 첫 번째 영상이 안 올라오면서 당황하기 시작했다. 비영어권에서 태어난 나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NASA 본부 사람들과 우리 팀 사람들이 꽤곡히 앉은 공간에 뒤틀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다행히도 우주기상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뒤로 국장님 과도 친해지게 됐다. 그러나 그 때 일은 아직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난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에 와있다. NASA에서 근무하던 초반에 “왜 왔나?” 했던 시간들과 찾길에 발을 두고 평생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오리, 그리고 영상 없는 브리핑...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나의 또 하나의 시간이 지나간 것이다.

## 영광의 순간이란?

NASA에 있는 동안 글로리호의 발사가 실패하는 일이 있었다. 천리안위성과 지상국 개발 업무를 하며 챌린저호 때 느꼈던 감정이 이따금 기억나곤 했다. 발사 실패한다면 감정을 지탱하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라데 동아리 모임에서 글로리호의 시스템 엔지니어를 만나게 됐다. 미국 영화배우인 시고니 위버를 연상시키는 짧은 머리를 한 중년여성이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삶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 얘기를 들으니, 그분이 보고 싶었던 영광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영광은 글로리호의 발사 성공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 뜨는 순간 그리고 지나간 시간 뒤에 남은 친구들이 아닐까 싶다.

# 카리스마

## 인생의 소명



조창범 / 응용기상연구과

언어는 변한다.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때로 파생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옛날에는 사냥용 매의 표식을 '시치미'라 붙였는데 오늘날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일컬어 '시치미 떤다'라 부르는 것이나, '흥청망청'이 연산군이 총애하던 기생 집단인 '흥청'에서 유래된 것들이 있다.

요즘 '카리스마'란 말을 참 많이 쓴다. 영화배우 최민수와 축구선수 김남일이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싶은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강한 눈빛과 인상을 가져 균중의 시선을 휘어잡거나,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한다.

혹시 기상청 독자들 중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또는 '섬기는 카리스마'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하! 그분' 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분과 같을 것이다. 다만, 그분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부드러운(또는 섬기는) 지도력의 의미로 사용한 것에 반해, 나는 부드러움 자체가 그분의 카리스마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발단이 되었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카리스마를 '강한 어떤 것(Something Strong)'으로 이해하면서 연예인이나 지도자를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내가 보기엔 훨씬 깊은 뜻을 가진 말이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었다.

### 카리스마, 신으로부터 받은 재능

카리스마(Charisma)는 고대 그리스어 즉, 헬라어 χάρισμα(khárisma)에서 유래하였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은혜의 선물을 의미하는데, 헬라어에서 은혜를 뜻하는 χάρις(charis)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영어에서 자비, 자선을 의미하는 Charity의 어원이 χάρις(charis)라는 것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될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헬라어를 언급한 이유는 어원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성경과 관계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뉜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그 중 일부는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원뜻을 설명하자면, 카리스마는 신이 모든 인간에게 나누어 주는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의미한다. 카리스마의 대표적 특성은 인간의 의지·훈련·교육을 통해 절대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모세 5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읽는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신도라면 카리스마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카리스마는 개인이 가진 재능을 말한다. 다만, 개인의 의지·훈련·교육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타고 난 것이다’라고 요약해드리고 싶다.

덧붙여,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통해 카리스마는 대중 친화적 용어가 되었다. 아마도, 그가 유대인의 이집트 탈출과 그 후 40년 광야 생활을 이끈 모세의 카리스마를 보며, 이것을 지도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매력(Charm)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 사람은 자신만의 카리스마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란 속담이 있는 걸 보니, 동양 사상에서도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뉠의 존재 의미와 함께 존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나는 여전히 인간이 만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카리스마 역시 그것과는 비교되지 못할 만큼 고귀한 것이라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존재

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인생의 소명(召命)을 실현하는 도구로 여기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한다.

### 카리스마, 인생의 소명

나는 직업을 소명(召命)이라 여긴다. 나를 보고 동료를 떠올려 보면, 내가 재능이 있듯이 모든 동료가 재능이 있다. 즉, 기상청이란 일터는 다양한 재능들이 모인 울타리인 것이다. 다만, 이 안에서 각자의 재능이 충분히 발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틀과 제도의 문제에서부터 사상관의 차이를 탓하지만, 많은 동료들이 성공을 공통으로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화영화 <머털도사>에서 주인공 머털이는 10년간 누덕도사 아래서 갖은 고생을 하며 배운 것이라곤 겨우 머리카락을 주뿔 세우는 것이라고 늘 불평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누덕도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었으며, 모든 마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다. 그런데 정작 머털이가 훌륭하게 된 이유는 그 능력이 끝내주는 기술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고초를 겪으며 그가 가진 재능에 소명을 느낀 후부터였다. 바로, 이때부터 머털이가 카리스마 있게 보이기 시작한 때인 것이다.

## 영국 레딩대학교에서의 두 번째 학창시절



국현훈 / 정보통신기술과

누구에게나 학창시절은 있다. 영화나 TV에서 학교를 소재로 한 이야기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 받는 이유, 바로 누구나 자신만의 학창시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나에게도 학창시절이 당연히 존재했다. 그때 어땠냐고 묻는다면, 갑자기 먹은 떡 한 조각이 걸려 가슴이 답답해 오듯, 고등학교 3년간의 기억들이 늘 어둡게 기억 저편에서 밀려온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좋지 못한 기억 중의 하나는 내가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쉽게 말해 난 공부를 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는 너무 어리고 다소 현명하지 못했던 게 아니었을까?

지금 이렇게 10대의 학창시절을 기억 속에서 꺼내는 이유는, 내가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 바로 과거의 충실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러니하게 나는 그때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잠시 휴직하였다. 과거 고등학교 때에는 주변에서 공부하라고 가족들, 선생님, 주변 지인들까지 재촉하더니, 30대가 넘어 다시 공부를 하려니 또다시 주변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며 말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다르지만, 또다시 시작된 그러한 주변의 여러 우려를 뒤로하고, 영국 레딩대학교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드디어 입학 첫날이 다가왔다. 학교에 가니, 학생들이 학생증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이동하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당에 비치된 카메라에 얼굴을 부끄럽게 들이대고 학생증에 들어갈 따끈따끈한 증명사진을 찍었다. 내 얼굴이 확연히 보이는 학생증을 받아, 갑자기 다시 학생이 되었다는 설렘이 말갭게 가슴속 깊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일주일간은 각기 다른 종류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인상에 남는 건 바로 소방교육이었다. 특히 기숙사 내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실제 기름이 담긴 프라이팬에 순식간에 불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과, 화재가 났을 때 절대 물을 뿌리지 말라는 조언은 학기를 모두 마치고 기숙사 문을 나설 때까지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만큼 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은 그냥





레딩 시내 전경



레딩대학교 학생들

시간만 때우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교육 위주로 진행되었다. 나중에 보니, 움직일 때마다 발밑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기숙사 나무 바닥은 언제든지 쉽게 불이 붙는 소재여서, 잘못하면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1주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기상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약 5년여간 기상청에서 근무했던지라 기상관련 과목은 알게 모르게 자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수업에 들어가니, 영어로 진행되는 학문적 성향의 과목들을 따라가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기 기간에 느낀 가장 큰 나의 취약점은 고등학교 때부터 손을 놓기 시작한 수학과 물리 과목이었다. 기상학의 기본이 수학과 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수학적 계산능력과 물리학에 근거한 역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은 수업을 이어가는 것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결국 도서관에 비치된 중고등학교와 학부대학과정의 기본수학, 물리서적을 파고들고 나서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6~7개월 동안의 이론수업을 마친 후, 본격적인 논문 작업에 들어갔다. 내가 선택한 주제는 '지표면의 변화에 따라 인도의 여름철 장마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하지만 인도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후와 날씨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영국인 지도교수와 함께 1대 1의 논문지도를 받다 보니,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받았던 이론수업 시간보다 더 효

과적으로 기상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어 의사소통이나 영작문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전부는 아니지만, 영국인의 사고방식과 교육방식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모든 이론수업과 논문 제출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수업일이 다가왔다. 이날은 학생들이 그동안의 석사 과정을 직접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외부에서 온 전문가와 함께 교수진과 학교운영진 없이 자유토론을 가졌다. 놀라운 점은 우리 학교 교수가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이번 기상학 석사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안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아시아권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반면, 영국 및 다른 유럽권 학생들은 자유로우면서도 때론 거침없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외부 전문가와의 자유 토론 시간은 오랜 전통인데, 이런 시간을 내어 준 학교 측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1년여 간의 유학기간을 마치고, 지금은 새로운 부서에서 또다시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성취감이 참 크다. 하지만 목에 걸린 딱한 조각이 물 한 모금으로 말끔히 소화된 것처럼, 10대 시절 소홀했던 공부를 이제야 마무리했다는 속 시원한 갈증의 해소가 더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 “ 삶이 예술이 된다면, 당신과 함께 ”



창경궁 명정전



이옥수 / 대변인실

한 취업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직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를 차지한 직업이 바로 ‘예술가’였다. 예술가는 유망직업도 아니고, 직업별 연봉 순위에서도 바닥에 가깝다. 그럼에도, 직업인이면서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샐러리스트(Salartist)’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Salaries와 Artist의 합성어인 샐러리스트는 예술가로 살고 싶은 욕망이라기보다, 자신의 일과 예술을 결합시키는 하나의 융합 혹은 통섭의 과정으로 보인다.

물론, 나도 예술가를 꿈꾸었던 적이 있다.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재능이 부족했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열정마저 모자랐다. 그리고 주변에는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며, 핑계 같지만 그들의 예술을 내가 향유하는 편이 훨씬 더 예술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다. 소설가나 사진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조금 더 즐겁게 사는 법을 찾은 것에 가깝다. 물론 글은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거의 전부이고, 사진은 DSLR을 오토로 맞춰놓고 찍는 수준이지만 일상이 바뀌었다. 한쪽에서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다.



경복궁 경회루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소한 일들을 사진으로 찍고 글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창경궁과 경복궁 야간개방에 다녀왔다. 야간개방 입장권은 현장판매도 진행하지만, 수량이 적어서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편이 좋다는 말에 휴대폰 알람까지 맞춰놓고 예매시간을 기다렸다. 다행히 운 좋게도 예매에 성공했고, 그 사실을 핑계 삼아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입장권을 내고 창경궁에 들어섰을 때, 거의 탄식에 가까운 한숨을 내뿜었다. ‘단언컨대 고백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든가 ‘환상의 데이트 코스’라는 수식어를 붙인 고궁 야간개방 뉴스 기사를 보고도 무심코 넘겨버린 아침이 후회되었다. 밤의 고궁은 원손을 그려 쥐며 뜬금없이 고백을 하거나,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담벼락에 밀어붙여 입맞춤을 해도 전혀 어색할 것 같지 않은 공간이었다. 문화재청은 가을밤과 함께 깊어가는 고궁의 정취를 국민에게 선물하기 위해 고궁 야간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 밤, 사랑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창경궁을 빠져나오며, 다음에 갈 경복궁 야간개방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싶은 사람’과 함께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시간 만에 매진된 경복궁 야간개방 인터넷 예매에서도 운 좋게 단 1분 만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고 싶은 사람과의 만남은 실패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경복궁 야간개방 예매했는데, 시간이 괜찮아요?”

“아, 어떠하죠? 그날은 힘들 것 같아요.”

창경궁 야간개방에 다녀왔다는 내 말에, 먼저 경복궁 이야기를 꺼낸 건 그 사람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여기에서 아쉽지만 다음에 밤이나 먹자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좀 더 정성스럽게 거절해 주면 안 될까?” 라고.

결국, 알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과 경복궁에 갔다. 창경궁이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느낌이라면, 경복궁은 규모에서 압도해 오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경복궁의 꽃’이라 불리는 경희루는 화려하기보다는 그윽했다. 밤에 피는 꽃이자 기다림이라는 꽃말을 가진 달맞이꽃이 떠올랐다. 경희루의 밤은 수백 년을 넘어 관통해 오는 아주 묵직한 기다림이 전해졌다.

그날, 내 카메라에는 알고 싶은 사람 대신 아는 사람의 사진이 찍혔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을 핑계 삼아 알고 싶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경복궁의 밤을 보지 못한 걸 후회할 거라는 소심한 협박이나, 내년 봄에 있을 고궁 야간개방에 함께 가자는 약속이 아니다. 이 사진으로 내 삶이 예술이 되는 것 같다는 들뜬 마음을 전한다. 일과 예술을 즐기는 셀라티스트까지는 못되어도, 일과 예술을 핑계 삼아 행복해지는 밤이라면서.



경복궁 근정전



창경궁 승문당



광화문

## 「기상정보론」을 읽고...



허은 / 전직 기상인

지난 6월에 출간된 「기상정보론」 소식을 듣고, 기상자료나 관련 현상들을 어떻게 기상정보로 승화시켰을지 궁금했다. 저자인 이만기 전 기상청장은, 재임기간 동안 때론 예보관들과 밤을 새워가며 기상예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등 열정적이었다. 기본적인 업무에 깊이 파고들며 기상정보의 내용과 가치를 소중하게 체험하고, 획기적인 정책 결정으로 기상청의 수치예보모델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던 분이었기에 이 책을 저술하는데 특별한 사명감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궁금증은 「기상정보론」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해소되기 시작했다. 저자는 기상정보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산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상대적으로 기상정보사용자들의 관심과 이해가 적은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풀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해 나갔는데, 그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특수한 성격을 가진 기상정보를 정의하고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기상정보는 방재정보, 웰빙정보, 산업기상정보, 군사·안보에 관한 정보이면서 다른 정보들이 가지지 않는 생명에 관한 정보,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정보, 또 정확성의 민감도가 높은 특성 등을 지닌 ‘특수정보’라고 정의하면서 일상생활과의 유기적 관계를 짚어낸다. 그러면서 ‘양질의 정보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점에 그리고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 정보’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둘째,** 기상현상과 자료 등이 **기상정보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기상정보는 정확성, 신속성, 적시성, 접근성, 가공 및 활용성 등이 좋아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여러 생산과정과 특성들을 통해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실생활과도 밀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기상정보의 정확성 못지않게 그 전파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정보전달의 과정과 창의적 역할을 살펴해 나간다. 그리고 기상용어는 왜 명확하고 평이해야 하며 어떻게 발음되어야 하는지, 또 방송관련 기법과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등의 소중한 팁도 제공해 준다.

**셋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상정보 가치의 인식과 결정** 등의 중요성을 상세히 일깨워 준다. 현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기상정보는 재해감소에 집중하던 범주를 벗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날씨경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더 많은 가치창출과 이익실현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예리하게 분석해 설명해 준다. 특히, 기상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 방법과 기상정보 가치평가 추정방법 등을 제시하여, 기상정보의 가치 인식을 한층 높여 날씨경영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게 한다.

**넷째,**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과 **기상정보 활용 및 영향**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우선, 기상정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보 생산자와 전달자 및 이용자의 다각적인 노력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돋보인다. 또한 기상의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진단하면서, 미래의 지속발전을 뒷받침하는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기상정보 서비스업을 밝게 전망하고, 향후 민간 기상사업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도 저자의 남다른 식견을 다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최근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기후변화의 영향과 전망을 다루면서, 기후정보가 기상정보와 어떻게 달리 활용되는지를 밝히고 기후정보의 중요성과 활용,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련 서적들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치우친 점이 많았다면, 이 책은 독자들이 궁금해 하고 경영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에 비중을 두고 기술되어 한층 이해도를 높여 주었다. 정보가 생산·전파되고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이르기까지 **기상정보에 대한 인식과 활용가치를 한 차원 높여**준 이 책은 기상 및 기후업무분야 종사자는 물론, 기상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일반인 모두가 기상정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기상현장에 몸담았던 이들이 자신이 관여했던 정보들이 어떤 수준으로 발전됐는지를 되새겨 볼 때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구기상대의 새 시대를 열다

지난 9월 30일, 대구기상대는 76년 동안 정들었던 동구 신암동에서의 기상업무 시대를 마감했다. 그 후, 효목동으로 이전해 대구기상대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긴 난항 끝에, 직원 모두가 이뤄낸 쾌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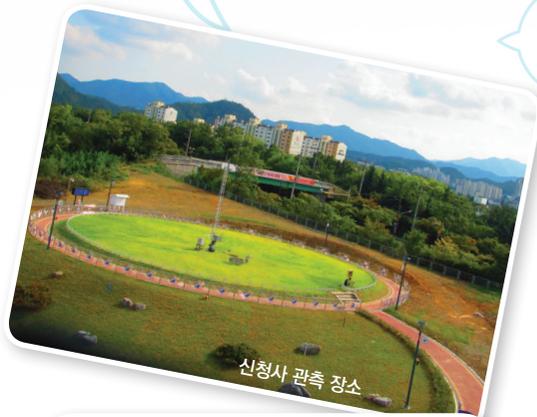
박신영 / 대구기상대



**대구기상대**는 1907년 대구 포정동에서 대구측후소로 건립되어 기상업무를 시작했다. 그 후 1916년 덕산동을 거쳐, 1937년부터 신암동에서 기상관측 및 대구·경북지역 예보업무를 책임져왔다. 그러던 중 2007년에 대구기상대가 있는 신암동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기상대 이전이 추진됐다.

2008년,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주변 건물에 대한 고도제한 등의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과 달서구청에서 극심하게 반대했다. 결국, 대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기상관측지를 재조사하여 2009년 9월, 드디어 대구기상대 이전 부지가 최종 결정되었다. 바로, 현재 청사가 있는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아양문화센터 뒷산이다. 그러나 이전사업은 쉽게 추진되지 않았다. 대구기상대 이전 부지를 소유한 지주들과의 협의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가 병행되었다. 청사 신축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동촌유원지 일대는 문화재 산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거쳐야만 했다. 시굴조사 결과 다량의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해당하는 여러 유물이 출토되어, 2012년 10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정밀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2012년 12월 12일,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됐고, 드디어 대구기상대의 효목동 시대를 알리는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신청사 관측 장소

청사 이전을 준비하며, 부지 선정부터 토지매입 등 기공식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구광역시, 동구청,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한마음이 되어 대구기상대 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갖 정성으로 지원을 해주었다. 그 덕분에 2013년 9월 30일, 대구기상대는 76년 동안 수행했던 신암동에서의 기상기후업무를 완료하고, 효목동으로 이전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대구기상대 신청사는 총 부지면적 3만 7천 200㎡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 건물로, 신암동의 옛 기상대보다 4배가량 크다. 도심 속에 있던 신암동 건물과 달리, 현재는 관측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 앞으로 적어도 100년은 기상관측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 장담한다.

또한, 넓어진 부지만큼 직원들을 위한 공간도 많아졌다. 대구·경북 특보관 서답게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의 예보 현업실이 갖춰졌고, 직원들의 끼니를 책임질 넓고 쾌적한 식당도 마련됐다. 그리고 방송시설 및 영상시설도 갖추고 있어 식당에서의 회의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체력을 책임질 체력단련실과 보금자리인 생활관, 또 무대조명까지 갖춘 대강당과 빈 공터를 활용한 옥상정원 등도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꾸며졌다. 신암동 옛 청사는 앞으로도 관측 장소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의 대표적인 기후 값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현재 대구기상대 관측 자료가 대구의 대푯값으로 자리 잡으려면 최소 10년이 지나야 한다. 그래서 신암동 옛 기상대는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대구를 대표하는 기상관측 값을 생산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랑스러운 것은 지난 10월에 착공되어 2014년 8월에 준공되는 대구기상과학관이다. 기상과학관은 체험시설과 기상과학의 원리, 그리고 100% 정확한 기상예측의 어려움 등을 잘 연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기상과학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과학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면적은 2,592㎡ 규모이다. 실외 체험시설로 조성될 기상과학동산과 함께,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기상대를 찾는 모든 고객에게 만족스런 과학문화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다.



前 대구기상대(신암동)



신청사 준공식



기상과학관 조감도

“ 대구기상대의 새 모습과 멋진 기상과학관, 모두 기대해 주세요! ”

# 인천기상대가 이사하던 날



김주희 / 인천기상대

“뚝뚝~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인천기상대 신청사 준공식이 있던 지난 10월 22일. 날씨도 기상대 직원마냥 멋진 하늘로 새 단장을 도와주고 있었다.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결혼 전 꽃단장을 마친 신부와 같은 설레는 마음으로(얼마 전, 결혼식 신부대기실에서 느꼈던 설렘과 비슷하다고 하면 거짓말일까? ^^) 손님들을 맞이했다.

준공식은 이나영 SBS 기상캐스터가 사회를 맡고, 장현식 인천기상대장의 청사신축까지의 경과보고, 고유화 기상청장의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을 마친 후엔 기념식수와 테이프커팅, 그리고 청사시설 시찰과 리셉션까지 이어졌고,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준공식 일정을 모두 끝내니, 그동안 청사 준공까지의 열악하고 힘들었던 인천기상대 생활이 머리에 하나둘 스쳐갔다. 정말 고생스럽긴 했지만, 왠지 짝한 추억으로 여겨졌다.

## episode1 정든 건물을 철거하고 컨테이너로 옮기다

지난 3월 18일, 인천기상대 건물 철거에 앞서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로 이사를 했다. 현업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옮기고 나니, 앞으로 신청사가 지어질 동안 이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하기도 했다.

다음날, 거대한 굴삭기가 인천기상대 건물을 덮쳤다. 굴삭기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내가 근무했던 공간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좁고 낡았지만 정들었던 공간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이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 History 인천기상대 100여년의 역사이야기

1883년 9월 1일, 인천해관을 시작으로 원산, 부산해관에서 간이 기상관측기구를 설치하여 최초로 기상관측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기상관측은 근대적이지 못했다. 1904년 3월 5일, 일본 중앙기상대는 인천에 임시관측소를 설치하고, 민가 스이즈여관(일본 거류지)을 차용하여 4월 10일부터 일 6회 정규기상관측을 시작하면서,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기상역사가 시작되었다. 1905

년 1월 1일에 신청사(자유공원 응봉산 정상)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100년 이상 한자리를 꿰뚫어 지키며 근대기상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인천관측소는 근대기상관측을 수행하면서 국내 및 만주지역의 여러 관측소를 총괄하였고, 시계가 매우 귀하던 시절엔 매일 낮 12시에 포를 쏘아 정오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국립천문대가 발족하기 전까지 역시 편찬 및 천문 관측도 수행하였다.



## episode2 발이 푹푹 빠지던 진흙바닥 출근길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로 옮긴 후 비가 오는 날이면, 포장 안 된 사무실로 가는 길은 어김없이 내 발을 푹푹 잡아당겼다. 그렇게 사무실에 도착하면, 운동화는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있었다. 더욱이 장마철엔 계속되는 비로 너무나 불편했는데, 남자 직원들이 공사 때 쓰는 벽돌을 이용해 징검다리를 놓아줘서 한결 출근길이 쾌적해졌다. 정말 다시 한 번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 또,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의 컨테이너 생활은 왜 그렇게 덥던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옹기종기 앉아 근무하다 보면, 퇴근시간이 되기도 전에 기운이 다 빠져버리곤 했다.

## episode3 신청사 바닥에서 점심을 먹던 시간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무렵인 지난 9월 10일, 드디어 신청사로 이사를 갔다. 아직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책상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근무를 해야 했다. 또한 직원들이 오순도순 식사를 할 식당도 완성되지 않아, 예보실 한쪽 구석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자장면을 먹어야 했다. 어찌 보면 불쌍한(?) 시간을 보냈지만, 준공식을 마친 지금은 웃음 짓는 추억이 되었다. 이제 인천기상대 직원들은 전과 다름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 걸모습이 달라진 만큼 근무환경도 좋아져, 일할 맛 나는 사무실에서 본래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한 몸에 받게 되어 벌써부터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나 견학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기상대는 인천·경기지역의 관측과 예보뿐 아니라, 보다 향상된 기상·기후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인천기상대, 오늘도 파이팅~!”

# ‘10일 예보’의 시작, 생활이 반올림 됩니다!

예보정책과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 7월, 일기예보를 묻는 전화가 왔다.

“이번 주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 주말날씨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지장이 많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 예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일기예보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도 기상청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조금만 알려주세요?”

“현재 주간예보는 7일까지의 예보를 발표합니다. 다음 주말날씨는 일주일 전인 이번 주말부터 발표되니 그때 확인해 주세요.”

“이번 주말에 알면 늦는데... 틀려도 좋으니 대강이라도 알려주시죠?”



가족과 단풍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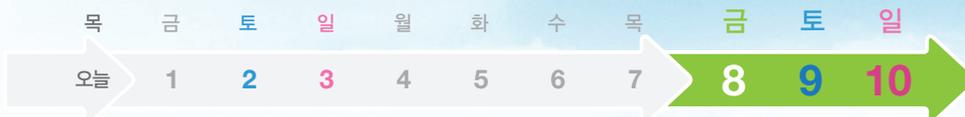
또 지난달엔 한 농민이 전화를 하였다.

“이번 주말에는 아들 장가보내야 하고, 다음 주에는 나락을 걸어야 하는데 날씨가 어때요?”

“이번 주말엔 날씨가 좋아서 결혼식하기에 좋을 듯합니다. 다음 주에도 주말까지 날씨가 좋은데요. 수확하시기에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음 주말에 아이들 보고 일손 좀 도우러 오라고 해야겠네요!”

“그래도 모르니 날씨는 매일 확인하세요.”



위의 두 전화의 차이가 보이는가? 바로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일부 개편되면서 달라진 풍경이다. 지난 10월 15일부터는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위험기상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기예보 서비스가 개편되었다. 여가시간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더 먼 미래까지의 상세한 날씨 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져가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예보기간을 늘려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전 세계 과학기술자들이 모두 모이다



임한철 / 기후변화감시센터

요즘 지구가 뜨겁다. 기상이변을 동반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뜨겁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때문에도 뜨겁다. 매일 매스컴을 통해 기후변화 이야기가 나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소리도 들려온다. 사람도 숨 쉬며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뿜고 있으니 이산화탄소와 친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소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과정을 볼 기회나 경험을 가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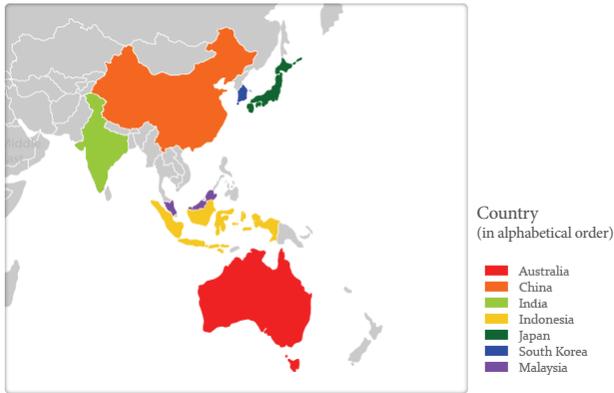
이산화탄소의 발생 원인과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지식검색에도 흔치 않고, 일반 사람들의 궁금증이 거기까지 미치지도 않는 것 같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일은 정밀한 장비와 어려운 측정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지난 10월, 기후변화감시센터 주관으로 제주도에 전 세계 10개 국가(미국, 호주, 독일,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온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과학기술자들이 모두 모였다. 이들 과학기술자들이 측정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값은 기후변화의 위협을 피해 인류를 생존길로 안내하는 방향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어떻게 매년 기상청에 모일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기상청은 1999년부터 온실가스 측정기술을 개발하고 관측을 시작해왔다. 참으로 선배님들의 기후변화 문제 인식에 대한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다. 2010년 기후변화감시센터는 이미 온실가스 측정기술을 장기간 축적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온실가스 농도를 매년 발표하고 세계자료센터와 자료를 공유해 오고 있었다. 그동안의 역량을 모아 기상청은 온실가스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기상청의 축적된 측정기술을 전 세계에 펼쳐보이고자 하였다.



2010년 제주도 KAL 호텔에서 있었던 '아시아 GAW 온실가스 실무자그룹' 첫 회동 모습



2013년 현재 아시아 GAW 온실가스 실무자그룹 참여국 :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이에 발맞춰 기후변화감시센터는 온실가스 측정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기상청의 국제기구유치 도전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그때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아시아 온실가스 실무자그룹’의 결성이었다. 이산화탄소를 관측하는 실무자들을 한번 모아보자는 조그만 계획이 쉽진 않았다. 온실가스 감시는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게 새로운 분야였고, 책임담당부서도 명확하지 않았다. 당연히 누가 관측을 담당할 것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으며, 담당자를 찾아 실무자 그룹미팅을 개최하고 초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할 예산 자체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었다.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 선진국의 측정기술에 의존한 공기샘플 보조업무 수준이었으니 너무나 당연했다. 결국 온실가스 측정기술에 대한 각 나라의 전문지식의 갈구와 기후변화감시의 관심증대는 2010년 ‘아시아 온실가스 국제워크숍’의 자리를 빌려 온실가스 측정기술자들이 제주도에 모두 모이게 하였다.

아시아 온실가스 관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다 모인 다니 참으로 흥분되는 순간이었다. 시작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이렇게 5개 국가로 시작되었다.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회의다 보니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관측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의 장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실무자 모임이 아니라 실무책임자 모임이 되었다. 관심과 열정의

로 모이다 보니 많은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센터에서 공정하게 리드하고 구체적인 안건으로 접근하니, 의도했던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제일 먼저 모인 자리에서 ‘아시아 GAW 온실가스 실무자그룹(Asian GAW Greenhouse Gases Working Group)’으로 공식 명칭이 정해졌고, 공식홈페이지(<http://www.climate.go.kr/home/Eng/htmls/ggwg/sub1.html>)도 오픈하게 되었다. 2013년 현재, 아시아 7개 국가 실무자 1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GAW : Global Atmosphere Watch, 지구대기감시

아시아 온실가스 실무그룹 참여 나라의 지지에 힘입어 기후변화감시센터의 국제워크숍은 ‘아시아 온실가스 GAW 워크숍’으로 국제기구(세계기상기구 GAW 프로그램)의 공식 지역워크숍으로 거듭났다. 또한 센터의 제안으로 아시아 온실가스 농도변화 및 관측기술 소식을 전할 국제 뉴스레터를 기상청이 발간하게 되었다. 첫 발간과 함께 국제 발간물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공식적인 국제 발간물로 등록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 GAW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아시아지역의 활발한 지역 기후변화감시 활동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능동적인 조그만 의지에서 시작된 노력은 2011년 하반기에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기상청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 현재 계속된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전공한 전문 인력들이 기상청에 채용되어 업무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기상청의 발전과 성장은 끊임없이 진행 중임이 틀림없다.

곧 잊혀질 수 있는 센터의 이야기이자 개인사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작은 열정과 자긍심이 수많은 창의적 생각을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목표에 대한 끊임없는 수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기상청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평생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이산화탄소 측정 과학기술자들은 많은 해답과 새로운 질문을 안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값을 측정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꼼수 커플 VS 꼼수 솔로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 눈에 익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내겐 바로 그 커플이 유독 그랬다.

전날 새벽까지 야근하느라 거의 잠도 못 자고 출근하던 길이었다. 지하철에서 줄곧 서서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피곤했다.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픽 쓰러져 잠에 빠져들 것만 같았다.

정신줄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의 현란한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스킨로션부터 바르기 시작하더니, 그 민망한 표정의 마스크라 신공까지 발휘해 가면서 무한 변신하고 있었다. 신기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저런 화장기술을 선보이는 용기(?)에 조금 감탄스러웠다. 또한 아침에 얼마나 바빴으면 지하철에서 저런 완전한 화장을 하는 건지 좀 안쓰러워지기도 했다. 그녀는 툼툼이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모습도 보였다. 마주하고 있다 보니,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해도 보이고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때, 그녀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아싸,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기쁜 맘으로 앉으려는데, 그녀가 수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여기, 자리 있는데요. \*^^\*”

오잉? 순간, 지하철도 이제 예약석을 만나 싶었다. 당황하고 있는 찰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빛의 속도로 들어와 그녀 옆자리에 땀방울 앉았다. 앉자마자 닭살행각을 펼치는 그들을 보니, 그녀의 남자친구인 것 같았다.

헐... 얼굴에 파우더만 바른 게 아니라, 철판도 같이 깔은 게 아닌가 싶어졌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그저 한번 훗~ 웃고 말았다. 이제 막 이십대가 된 듯한 둘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니, 그 시절을 보내온 성숙한 30대로서 쿨~하게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눈도장을 찍어서일까? 그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들과 마주치고 말았다. 그것도 나란히 셋이 지하철에 서 있는 모습으로 말이다. 손잡이를 잡은 나와 달리, 그 커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날도 만성피로 상태였던 난, 그저 앞에 앉은 사람이 어서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이런 내 바람이 통해서일까? 졸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부랴부랴 역명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다닥 짐을 챙기는 것이 아닌가!

‘아싸, 이번엔 진짜 내 자리구나!’

기빠하며, 앞에 앉은 사람이 편히 나갈 수 있게 살짝 옆으로 비켜 주었다.

근데, 그 순간 뭔가 휘리릭 쓱쓱 지나갔다! 쏠살같이 날 밀쳐내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바로, 그 커플녀였다.

‘이것들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여겨저기 막 그냥!’

밀려나서 커플남 옆자리에 서있게 된 난, 제대로 울컥하고 말았다. 근데 다행히도 내 앞에 앉은 사람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후후후... 이번엔 앉을 수 있었냐고? 그녀는 재빨리, 그 새로 생긴 옆자리로 옮겨 앉은 여자였다. 그 커플녀가 앉았던 자리에 그 커플남이 앉을 수 있게 말이다.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찰똥커플’이었다.

요즘 난, 심각하게 차를 사야하나 고민하고 있다. 언제부터 지하철이 커플전용석이 됐는지... 솔로들에겐 짝벌남, 개똥녀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염장커플’인데 말이다.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기, 내린 다음에 승차하기’ 등의 지하철 에티켓에 하나만 더 추가해 주면 안 될까? ‘커플은 따로 앉기’ 같은 훈훈한 거 있지 않은가! 아니면, 여성전용칸도 있었는데 커플전용칸과 솔로전용칸,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건 어떨까? 아... 제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바둑맨이 들려주는 기초돈돈 연금이야기!



10월  
예보

생활의 반올림# 10월 예보

## 청춘의 약속을 반올림합니다.

“ 체육대회 날 비 올까 고민하던  
우리 동아리 회장...”

“ ‘학업’과 ‘사랑’  
어느 하나 포기할 순 없는데...”



10일 예보 확인!  
화요일이면 다음주 금요일 예보까지 나오니  
일정잡기가 훨씬 쉽다네~

10일 예보 확인!  
이번 주말은 비 예보, 밀린 리포트 작성하고!  
다음 주말은 맑음 예보, 놀이동산으로~

10월  
예보

생활의 반올림# 10월 예보

## 가족의 행복을 반올림합니다.

“ 올 여름 휴가는 제주도 확정!  
캠핑 계획도 있는데 날씨가 문제네...”

“ 우리 가족 올 가을 단풍놀이~  
날씨가 좋아야 단풍놀이 제대로 하는데...”



10일 예보 확인!  
비 예보 있는 날은 펜션 예약하고,  
맑음 예보 있는 날은 캠핑장 예약!  
3일 더 길어진 예보로 미리 예약하니 참 편하네~

10일 예보 확인!  
수요일에 출근해서 일기예보 확인하니  
다음 주 토요일 맑음 예보까지 볼 수 있네~  
다음 주 토요일 기차표 당장 예매해야지~

### 10일 예보로 생활을 반올림하세요!

음악에서 반올림(#)은  
반음을 올려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반올림을 하면 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 납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10일 예보로  
국민 생활을 경쾌하고 밝게 반올림 하겠습니다.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1호' 현장 시찰(10.18)

국회 환노위 위원들이 기상청에 대한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한 후, 인천항에 정박한 해양기상관측선 '기상1호'를 방문해 현장 시찰을 하였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 아시아 3개국에 기상 정보통신기술 전수(10.6~26)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기상청 직원을 초청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과 수치예보모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 등을 전수했다.



### IPCC 보고서 발간대응 융합워크숍 개최(10.8)

지난 9월에 발표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새로운 미래 기후전망의 의미와 기후변화 공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기상청장, 출입기자 및 첫 정책간담회 개최(10.16)

고윤화 기상청장이 취임 이후 첫 정책간담회를 열어, 기상 장비 기술표준규격을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10.17)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행정기관 부문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예보 경험과 노하우를 지식화한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해 예보정확도를 향상시킨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 ‘국가레이더 융합행정 포럼’ 개최(10.30)

정부3.0 실현을 위한 국가레이더 공동 활용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안전행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후원했고,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 종합토론도 진행하였다.



### 제4회 날씨경영인증 수여식(10.31)

날씨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현대그린푸드 등 모두 15곳의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마크(W마크)를 부여했다.

#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운

# Quiz!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 이번 달 퀴즈

-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괴산호 둘레에 조성된 총 길이 10리인 옛길은?  
① 죽령 옛길    ② 대관령 옛길    ③ 무등산 옛길    ④ 산막이 옛길
- 사냥용 매의 표식을 부를 때 썼으며,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일컬을 때 '000를 뚱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① 걸음마    ② 생딱지    ③ 진단서    ④ 시치미
- 2014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과학관은?  
① 서울기상과학관    ② 인천기상과학관    ③ 대구기상과학관    ④ 광주기상과학관

### 지난 달 퀴즈 정답

- ③ 백엽상
- ② 고산증
- ① 화룡점정

### 지난 달 퀴즈 정답자

- 이윤서(군포)    2. 문은미(인천)
- 고장미(부산)    4. 송희태(전북)
- 김휘곤(울산)



##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11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0.21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기술서기관(담당관)	신도식	전보	10.25	기상청	기후과학국	운영지원과	서기관(과장)	김영동
				행정사무관	김재호					청장실	기술서기관	정현식
				기상사무관	김명규					대변인	기상연구관(대변인)	정관영
				기상연구관	방소영					기상기술과	기술서기관(과장)	신동현
				기상연구관	김동준					관측정책과	기상연구관(과장)	나득균
				기상연구관	김윤재					기후변화감시센터	기술서기관(센터장)	허복행
		수치모델관리관	수치자료통합팀	기술서기관(팀장)	김동준			대전지방기상청	기후과	기술서기관(과장)	전준항	
				기상사무관	박경진					인천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박정규
				기상연구관	박상욱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방송통신사무관
		기후과학국	기후협력서비스팀	기술서기관(팀장)	박철홍			관측기반국	지진정책과			기상사무관
				기상사무관	한상현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지원과	기술서기관
				기상연구관	이은정							
명예퇴직	11.2											

# 용기있는 복지부정 신고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신고자 철저한 비밀보장  
보상금 최대 20억 원 지급

-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10
- ✓ 팩 스 02-2110-0678
-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 방문·우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2014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1 ← 999  
**대한대로**  
Daehan-daero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생활하세요!



세종대로 Sejong-daero	→ 도로명
<b>209</b>	→ 건물번호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쉽게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p>☛ 단독주택</p> <p>지번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b>암집리19</b></p> <p>↓</p> <p>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b>적들길 100</b></p>	<p>☛ 공동주택</p> <p>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b>1583-10</b> ○○아파트 □□동 △△호</p> <p>↓</p> <p>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b>반포대로 58</b> □□동 △△호(서초동, ○○아파트)</p>
---	---